

서울 만남 미래 Vol.75

관계의 시작

2024

자유로운 만남

활기찬 미래



관계의 시작

02 마음을 이어가는 글 관계의 시작

우리가 만드는 관계

직면하는

06 건강한 삶이란?

08 인생 2막에 오를, 나를 마주할 용기

사유하는

10 초록빛으로 물드는 우리의 공간

12 변화의 시작점

누리는

14 봄맞이 서산 문화체험, ‘꽃 넘어 옛 흔적 찾기’

16 어르신 일상의 활력, 버스킹

전하는

18 일상에 깃드는 문화예술 : 꿈을 다시, 봄

20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쌓이는 관계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24 나눔해, 보고싶어. 나눔 해보고싶어!

삶에 대하여

26 나눔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

나눔으로 꿈꾸는

28 그래도 우린, 이웃이에요

나(우리)의 미래

30 작전명, 청춘!

관계를 넘나드는

세대통합 이야기

34 할까 말까?

36 나의 아버지

현장의 목소리

38 관계를 만드는 사회복지사

외부기고

40 옆 집 손가락 알던 시절

피어나는 시간

42 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시간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인 지웅
 편집인 신희정, 유경희
 진행 이주연
 발행처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T.02-6220-8500 www.seoulnoin.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위드 T.02-6951-0402
 www.designwith.co.kr

관계의 시작



센터는 하루에 직원과 어르신, 직원과 봉사자, 봉사자와 봉사자 등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중 어르신들과 만나는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관계를 경험해 왔기에, 이를 통해 얻은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지혜를 배우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緣起)'사상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별 존재가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관계 맺음이 삶의 근본이자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해 나갑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센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직원, 봉사자 등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이곳이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합장

1.

CHAPTER

우리가 만드는 관계

직면하는

건강한 삶이란?	06
인생 2막에 오를, 나를 마주할 용기	08

사유하는

초록빛으로 물드는 우리의 공간	10
변화의 시작점	12

누리는

봄맞이 서산 문화체험, '꽃 넘어 옛 흔적 찾기'	14
어르신 일상의 활력, 버스킹	16

전하는

일상에 깃드는 문화예술 : 꿈을 다시, 봄	18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20

건강한 삶이란?

물리치료사 오서인

#건강이란 무엇일까?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안 아픈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하며 건강한 사회활동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은 어찌보면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사회에서의 건강한 삶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건강한 삶은 나의 몸과 마음을 동등하게 관리하게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건강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어르신은 스스로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이세요?

문득,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건강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께 여쭙보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나눠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은 어떤 분의 건강에 대한 의견에 가장 크게 공감이 가시나요?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며 맞장구 치고 계시진 않으세요?

선생님, 언제 또 운동 시작해요? 이번엔 뭐 해요?

저와 한번이라도 건강운동을 했던 분들이 저를 우연히 만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생님! 언제 운동 또 해요?”, “이번엔 뭐 해요?”, “나 좀 꼭 넣어 줘요.” 이 세마디 같습니다.

운동도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혹은 아내 따라, 혹은 담당자가 권유해서, 자의만 타의반으로 와서 운동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 되면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참여자가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인 친구,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다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건강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여러 어르신들 말씀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신체와 행복감을 느끼는 건강한 정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원하는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신체활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중요한 일인지를 몸이 아파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어르신도 글을 읽지 못하는 다른 어르신이 그토록 글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싶어서 동경하는 대상이며, 오늘도 걸어서 센터에 나와 건강하게 활동하는 어르신들도 누군가는 동경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의 감사함으로 좀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과 건강하고 즐겁게 호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건강한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좀 더 빛나시길 기원합니다.

“내가 명랑하게 웃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건강한 삶이죠!”

건강서포터즈 김00어르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센터에서 운동하고 끝나면 어울려서 같이 밥 먹고 함께 시간을 갖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 지키기 10분운동 참여한 전00 어르신

“몸 안 아프고 오늘처럼 센터에 나와서 친구들과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서 같이 숨 쉬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운동반 김00 어르신

“항상 즐겁고, 남을 배려하면서 같이 사는 삶이요.”

건강운동반 임00 어르신

“건강한 삶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내가 행복한 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서포터즈 김0 어르신



인생 2막에 오름, 나를 마주할 용기

사회복지사 이보람

안국동에 위치한 이곳,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오기까지 누군가는 많은 고민을, 누군가는 부푼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겐 슬픔을, 누군가에겐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듯이 말이죠. 친구와 함께 찾아오신 어르신, 은퇴 전 종로가 생활 터전이었던 어르신, 자녀와 함께 방문하신 분 등 가지각색의 이유로 센터를 찾으시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관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화려했던 나의 청춘, ‘젊음’의 막이 내리다.

회원가입 상담 도중에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곳까지 오는 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 이제 내가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어르신의 자택인 내수동에서, 안국동까지 지하철 한 정거장입니다. 그 짧은 3분이라는 시간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길 동안 어르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 같은 젊음의 무대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또 새로운 인생 2막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르신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을 현실이었을 겁니다. 노인복지관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노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있기에 지금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은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속명처럼 결국 누구나 ‘노인’이 되죠.
어떤 모습의 주인공이 될 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은빛행복가게 정인옥 어르신



은빛행복가게 김경옥 어르신

#인생 2막,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무대에 오르다.

‘봉사활동을 하루만 빠져도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식들만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무엇 하고 살아온 것인지. 일흔이 넘어서야 다시 내 이름을 찾은 것 같아’ 이는 한 자원봉사자 어르신이 한 말입니다. 한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르신에게, 센터에서의 하루와 봉사활동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엄마와 아내가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매일 살아가는 활기를 주는 곳, 사람들과의 새로운 연대와 만남이 있는 곳. 어르신에게 노인복지관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일평생을 지나, 다시 찾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노인복지관의 회원이 되어 내 삶의 이유를 찾아가고, 나를 직접 마주해 볼 용기를 얻고,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년배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인생 모습을 펼쳐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나를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 2막의 무대에 함께 오를 어르신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초록빛으로 물드는 우리의 공간

사회복지사 황유진

‘환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이를 막아주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바로 노인사
회활동지원사업 ‘친환경지킴이’ 참여자인데요, 우리의 활동을 소개해 드립니다!

2층 로비에 오시면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혹시 식물공장 안에 있는 식물들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흙도, 햇볕도 없는 유리관 안에서 크게 잘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어르신들이 꾸준히 물을 주고, 시든 싹이 있으면 교체하며, 식물이 건강하게 자
랄 수 있도록 영양제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에
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큰 힘을 주고 있는 식물공장을 어르신들이 매
일 사랑과 정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사랑과 정성을 이어! 또 다른 활동 공간인 옥상 텃밭에서도 활동하
고 있습니다. 키우고 싶은 씨앗을 텃밭에 심어, 새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조심하



물을 주고, 새가 흙을 파헤치지 않도록 망을 쳐 막아
내고 있습니다.

새싹이 나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보내고 나면, 오전과
오후로 꾸준히 물을 주며 키워내고 있고 식물공장에
서처럼 시든 부분이 보이면 솥아내며 최상의 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열정적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움으로써,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인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기가 정화됩니다.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
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를 정화해줍니다. 그렇게
발생한 산소로 인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
이고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환경 개선이 됩니다. 도시화 된 지역에서 식물
심는 것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
물은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하고 공기를 정화하여 도
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잘 자라난 식물들
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1층 매점에서 판매됩니다. 판
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정성, 사랑 그리고 꾸준한 관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변화의 시작점

사회복지사 신덕진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하는 ‘선배시민 거버넌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논의하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봄이 오는 4월 첫 활동으로 <담배꽂초 무단투기 인식변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직접 제작하신 어깨띠를 두르고 센터 인근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인사동까지 둘러보시면서 담배꽂초를 수거하셨습니다. 또한 꽂초가 많았던 장소마다 손수 만드신 풋말을 설치하여 활동에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선배시민 거버넌스는 올해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요, 앞으로 선배시민 거버넌스 어르신들이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의 시작점을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는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러한 지역사회 속에서 ‘선배시민’으로서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담배꽂초 수거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금방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하였느냐. 변화의 시작점이 누구였느냐를 생각해볼 때 우리 ‘선배시민 거버넌스’가 앞으로의 변화에 시작점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저희의 이런 활동이 다른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어 정말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요”



봄맞이 서산 문화체험, '꽃 넘어 옛 흔적 찾기'

사회복지사 이승주

‘꽃 넘어 옛 흔적 찾기’라는 주제로 자연 속에서 꽃과 지난 역사의 흔적을 찾아 보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외부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 4일은 24절기의 5번째 절기로 ‘청명’(淸明)이라는 날짜로, 하늘이 맑아지는 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날, 우리는 어르신들과 함께 서산을 찾아, 봄을 맞이하는 문화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서산은 복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특별한 자연 경관과 역사적 장소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문화체험에는 총 6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아름다운 수선화 축제가 진행되는 ‘유기방 가옥’이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활짝 핀 수선화 앞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인 해미읍성은 세종 때 군사적 중요성을 지녔던 역사적 장소로, 문화해설사와 함께 해미읍성의 역사와 유래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곤장대에서 누워보는 체험을 즐기시며, 해미읍성 성벽에서는 풍물놀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덩-기덕! 장구와 북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문화체험은 백일장을 통해 서산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여자 어르신들은 서산 문화체험 경험을 시, 일기, 그림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여 소감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센터 본관 2층 로비에서는 22명의 어르신들이 작성한 소감문을 4일 동안 전시하였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공감해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인상 깊은 소감을 선정하기 위해 스티커 투표도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산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하며 마주한 예쁜 꽃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 즐거운 여행을 즐겼어요.” 같은 멋진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백일장을 통해 서산에서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백일장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경험한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봄의 꽃 내음을 맡으며 자연 속 즐거움을 경험하고, 넓은 해미읍성을 마음에 품은 이번 문화체험은 어르신들의 활짝 핀 미소 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께 보다 다양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문화체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이번년도도 서울노인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나가요!



어르신 일상의 활력, 버스킹

사회복지사 이행복

매월 넷째주 목요일 13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즐거움의 버스킹 공연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버스킹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무대로, 센터 내 어느 곳에서든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예술 활동이 얹힌 이 특별한 시간은 색다른 예술과 감동이 함께합니다.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버스킹은 음악, 노래, 춤,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예술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가 관람객이 되어 즐길 수 있어 많은 어르신에게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버스킹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자유롭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춤을 추거나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람을 하던 한 어르신께서는 버스킹이 어르신의 열정과 예술적 재능이 얼마나 크게 발휘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취지라며 더 좋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후원금을 내주셨고, 어르신의 무대를 풍성하게 해줄 스피커를 구비하여 더욱 열정적이고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으로 꾸며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버스킹 공연 중 다른 한편에서는 ‘3분 캐리커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진행하는 캐리커처는 인물의 특징을 살려 귀엽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예술 활동인데, “내 얼굴이 만화같이 표현되었네- 재밌다!” 라며 어르신끼리 그림을 공유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르신에게 새로운 경험이 된 캐리커처는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버스킹에도 계속 함께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을 느낄 수 있던 4월에는 평소와 다르게 센터 1층 외부 테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는 지나가던 학생, 직장인,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어르신이 꾸며가는 공연을 구경하며 응원해주었는데, 그 모습을 통해 참여 어르신은 보람을 느끼며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의 소감을 통해 점차 버스킹 무대를 키워나가 지역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우리 어르신의 재능과 열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식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활력, 버스킹 공연은 앞으로도 꼭 계속됩니다. 예술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이 되는 버스킹 공연에 함께해주세요!



“외부에서 공연을 하려니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니 너무 즐거웠어요”
 “버스킹을 통해 나의 소중한 재능을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일상에 깃드는 문화예술 : 꿈을 다시, 봄

사회복지사 이서영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탐골미술관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꿈을 회상하고 현재의 꿈을 펼치는 과정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소통과 이해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년 전, 우리는 어르신들이 신인작가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도록 <도약의 단초>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 공모사업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주년을 기념하여 작년에 도약의 단초 공모로 자신의 꿈을 펼쳐 보였던 세 명의 어르신을 미술관으로 초대하여 어르신의 꿈을 응원하고자 <꿈을 다시, 봄>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꿈을 다시, 봄>은 어릴 적 꿈을 다시 되새겨보고, 그 꿈을 현실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담은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가족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영 작가는 손자에게 서울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화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서울 곳곳을 걸으며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자와 함께 전시를 개

최할 날을 꿈꾸는 어르신의 모습에 많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박미라, 유기남 부부작가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고 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자신들의 꿈을 담은 작품을 통해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림을 선물하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며 전시 작품들을 몇몇 관람객들에게 선물하여 예술을 통해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예술을 통해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담은 꿈의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번 전시로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공감하고, 새로운 꿈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관객이 작성한 “꿈을 꾸는 삶이 너무 멋지십니다. 그림을 보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다시 새로운 꿈을 꿈꾸게 되었습니다.”라는 방명록에 눈길이 갑니다. <꿈을 다시, 봄> 전시를 통해 문화예술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탐골미술관은 어르신들의 삶에 봄날처럼 따뜻한 희망과 기쁨을 전하며, 예술이 우리 삶에 더 많은 행복과 의미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영화로 전하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사회복지사 강민지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그 시작을 전하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은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그 시작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08년, 노인이 미디어의 주체가 되는 장(場)을 만들어 보기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미디어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과 영상 공모전을 통한 작품들을 상영하며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은 단순히 미디어의 수혜자라고만 생각했지만, 노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관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노인도 미디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노인과 청년이 더욱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청년 감독 부문을 신설하여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출품받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관심에 2019년부터는 해외에서도 출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노년의 삶, 가족, 세대 통합에 대한 한국의 노인감독, 청년감독,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시선을 볼 수 있었고, 2022년에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로 비로소 국제영화제로의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지난 15년간 국내외 8,939편과 53,352명의 관객이 함께 하며 노인영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다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46편의 국내외 단편경쟁과 29편의 장편초청 및 특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5일간 총 75편을 상영하였습니다. ‘늙지 않은 노인’을 콘셉트로 하여 노인에 대한 시선을 나눌 수 있는 다채로운 영화들과 부대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노인과 어린이라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돌봄과 위로를 담은 개막작 <빅 키즈>부터, ‘노년’이라는 화두에 던지는 신선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10개의 ‘SISFF 단편경쟁’과 어르신들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전영화전’,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장인들의 모습을 담은 특별장편 <장인이 된 소년>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중심에서 결코 늙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세월따라 이야기따라: 변사프로그램’은 무성영화시대의 스타였던 변사가 현장에서 직접 영화를 낭독하며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에게는 옛날의 영화관람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 감독의 카메라를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후대에게 전하는 ‘기억 아카이빙 프로젝트: 인생교환’, 서울노인복지센터 영화도슨트 어르신들의 해설을 관객에게 전하는 ‘도슨트초이스: 홈커밍 데이’까지. 더불어 영화제를 즐기러 오는 관객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 역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첫 시작인 어르신의 작품에 집중하고자 진행한 ‘노인 영화 감독반 작품 감상존’, ‘늙지 않은 노인’에 맞춰 ‘○○하지 않은 ○○’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보는 명함 제작 이벤트,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추천받아보는 ‘나의 영화 성향 테스트존’과 ‘영화도슨트 안내존’, 나의 젊은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틱톡 필터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는 영화 이상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가는 관계의 시작

올해에는 특별히 국제단편경쟁에 선정된 두 분의 감독님이 영화제 현장을 먼저 직접 찾아와 해외 감독과 국내 관객, 그리고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연결되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만난 청년 감독과 노인 관객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자원활동을 통해 만난 노인 시스프렌드와 청년 시스프렌드¹가 의견을 맞춰갑니다.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노인감독’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인이 될’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고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노인’이 즐겁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제를 통해 나누는 이야기와 경험이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길 바라며 이번에 시작된 관계가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랍니다.

P.S. 하반기, ‘찾아가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와 ‘다시 보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로 만나요!

1) 시스프렌드(SISFFriend): 서울국제노인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 자원활동가를 뜻함.



2.

CHAPTER

쌓이는 관계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나눔해, 보고싶어. 나눔 해보고싶어!

24

삶에 대하여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

26

나눔으로 꿈꾸는

그래도 우린, 이웃이에요

28

나(우리)의 미래

작전명, 청춘!

30

나눔해, 보고싶어. 나눔 해보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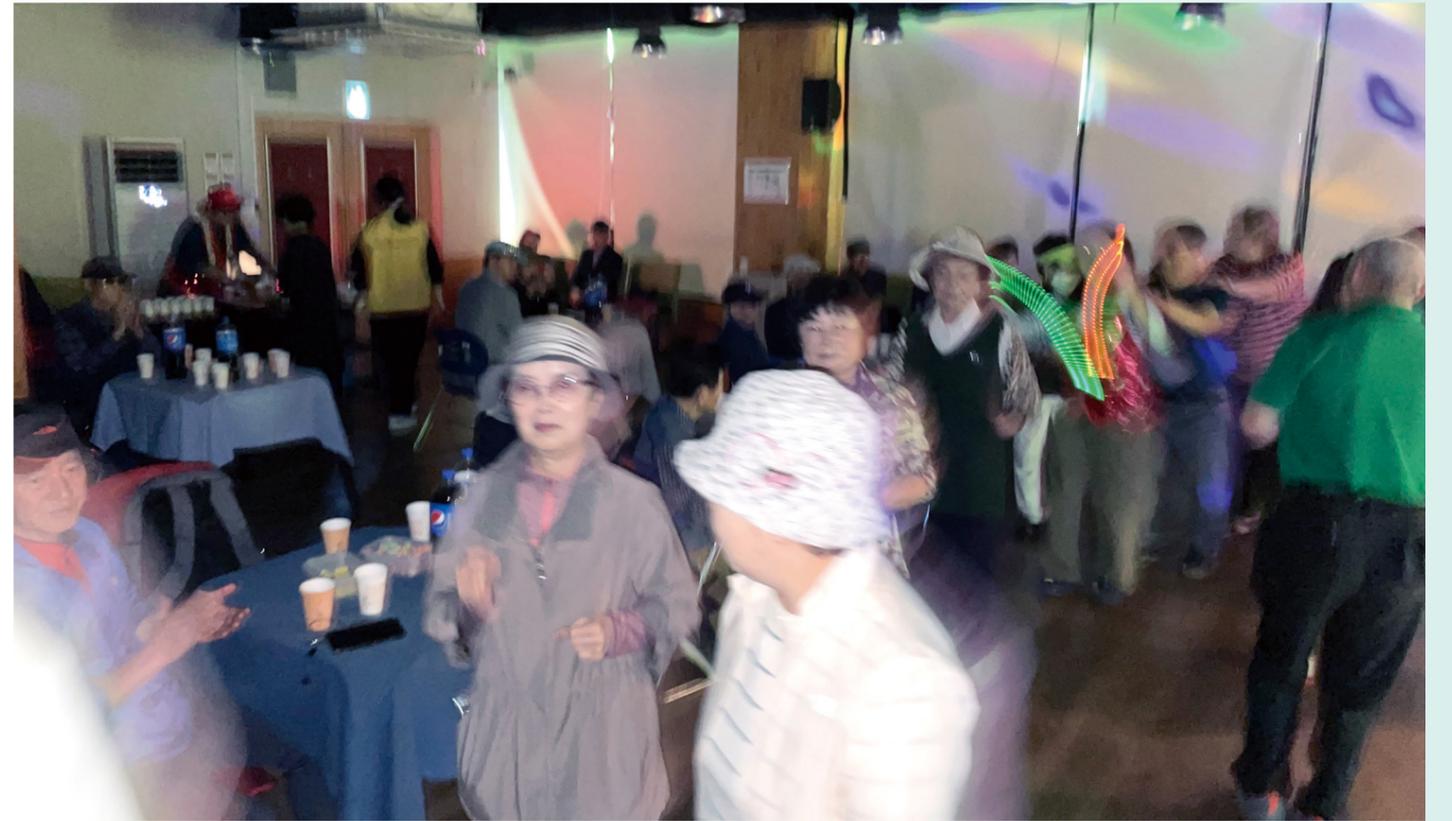
사회복지사 유경희

해마다 5월이 되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해 보고싶어’라는 주제로 나눔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나눔은 365일 언제나 가능하지만 나눔프로젝트 기간에는 좀 더 특별한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해보고 싶으세요?
나눔해? 보고싶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나눔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먼저, 등모금입니다. 센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종교와 상관없이 소원 등 달기를 진행합니다. 등모금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가족의 건강, 손주들의 학업 성취 등 소원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등표를 작성합니다. 또, 내가 아닌 소중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연꽃 등을 직접 만들어 소원지를 다는 연꽃등 만들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금행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단인 ‘서울노인 봉사단’, 동아리 회원, 급식지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해 보고싶어’ 모금 프로젝트에 참여한 봉사자 한 분은 “나눔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시간 또는 물질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만족이 더 큼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눔수록 풍성해지는

관계의 시작 Vol.75



나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나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나눔해 보고싶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나눔을 통해 담당자로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 기업이나 단체는 나눔공양, 영화제 등을 통해 나눔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나눔이 크지는 않지만,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풍성해 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00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개가 내가 하는 나눔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센터는 이런 나눔, 나눔, 나눔들이 모여 풍성해지는 나눔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

사회복지사 김광현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돈이나 물질, 지식과 경험 등 다양한 것들을 모으고 쌓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서 더 풍성해지는 삶을 깨닫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 자원봉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매일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7년 동안 한결같이 어르신들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50대, 60대 분들이 모여 삶의 내공을 나누고 자하는 <아름다운 5060>입니다.

매주 목요일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란 봉사자’님은 “2017년 4월에 시작한 급식자원봉사활동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수만명의 어르신들과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 마주함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낸 세월이 길어지는 만큼 저 또한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커져가는 것을 느껴요. 진심으로 누군가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대미어

관계의 시작 Vol.75



저희 <아름다운 5060>은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즐거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 담당자로서 매일 봉사자분들을 마주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시간을 내어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눔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그 속에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찾는 것, 아무런 대가없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진심을 주고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님의 손길로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살아갈 힘을,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개인, 단체, 기업 봉사자님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삶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언제나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린, 이웃이에요

사회복지사 서정민

관계를 시작하는 요소에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이와 어떤 이의 주고 받는 대화에서, 혹은 예기치 못한 장소에 내딛음으로써 시작되기도 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오가는 이곳 종로에도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고 바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동네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을 담은 고립가구 발굴·지원사업 <똑똑! 한 걸음>에는 소위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계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네 터줏대감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용실, 마트 등 이곳에서는 거쳐 지나가지 않은 주민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이사를 왔는지, 어디서 그 분을 만날 수 있는지, 동네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이 오랜 터줏대감들을 먼저 찾아가봅니다.

관계의 시작은 물리적 거리도 한뼘한다는 말처럼 동네 안으로 한걸음 들어올수록 우린 가까워집니다. 한날은 며칠 연락이 되지 않는 어르신을 걱정하며 가계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두들겨 볼까요. 그 분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잘 못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집에 계실거예요.” 덕분에 어르신의 안부를 잘 확인하고 돌아오던 중 문득 ‘아, 우린 여전히 함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어진 줄로 알았던 이웃이라는 말의 힘이 그래도 견재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이, 노인, 청년, 하물며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1대 1에서 시작될 순 있어도 1대 1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가며 인사를 나누던 이웃, 친구, 배달원, 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친밀함의 깊이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다양해질수록 나의 지지체계는 넓어집니다.

<똑똑! 한 걸음>은 청년·중장년으로 구성된 자원활동가인 지킴이활동가와 더불어 동네에서 오랜 기간 주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봉사단체, HY(한국야구르트) 등과 2년째 인연을 이어오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말을 거는 것도 불편해하셨는데, 오늘은 음료수를 먼저 건네셨어요.” “요며칠 허리를 다치셨다 해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밖에 나와 바람을 쐬고 계시더라고요.” 관심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고립이라는 말과는 사뭇 멀어지는 듯 합니다.



사람과 장소, 이들이 <똑똑! 한 걸음>과 함께하게 된 시작은 그리 대단치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한 동네 사는 이웃인데요, 도와야죠.” 대수롭지 않게 응대하던 그들의 말에서 무수히 많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대수롭지 않은 말을 주변 누군가에게 용기내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작전명, 청춘!

시스프렌드 조소미

‘이야기’가 가진 힘은 크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첫걸음을 떤 직장 초년생, 살림에 전념하는 아기 엄마, 팔십을 바라보는 노부부...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채로 극장에 모인다. 코믹한 장면에선 함께 웃음을 터트리고, 어떨 땐 왈카닥 눈물을 쏟기도 하면서. 그간 흘러간 세월은 각기 다르지만 동일한 경험을 아울러 교류하는 것이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소이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꿈과 추억, 아니면 사랑이나 가족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모두가 귀를 기울일 때 세대 간 단절된 마음은 차츰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 순간을 경험해 보고 싶단 마음으로 ‘시스프렌드’에 지원하였다. 시스프렌드 합격 소식은 3월 흐드러지게 핀 벚꽃보다 화사하게 느껴졌다. 매주 금요일, 회의하는 날이면 괜스레 가슴이 설레었다. 봄바람을 맞으며 안국역을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다. 우리는 영화를 주제로 모인 듯했지만, 그 이면엔 더욱 내밀한 이유가 존재했다. 바로 노인을 위하는 다정하고도 깨끗한 마음이었다. 영화제 의미를 전한 홍보팀. 노인을 아름답게 담은 영상팀.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한 현장팀. 한마음 한뜻으로 연결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성을 기울였다.



그 노력의 결실은 5일간 영화제 현장에서 맞이할 수 있었다. 개막작이 매진될 정도로 극장에는 관객이 짹짹 들어찬 모습이었다. 책가방을 메고 온 학생도, 단장을 짚은 노인도,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앉아 있었다. 그 장면을 뒤에서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몽클함이 물려왔다. 영화는 청년과 노인, 그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관객’으로서의 동일한 시간을 선사한 것이다. 그 시간 속에는 청년들의 빛나는 시절인 청춘이 그 자체로 반짝이고 지나가버린 줄만 알았던 어르신들의 청춘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박수 소리가 물결쳤다. 그 소리의 파동은 마음까지 밀려들어왔다. 영화제의 가치가 난만히 피어오르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시스프렌드를 하며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희망을 말하는 노인과 다시금 꿈을 꾸는 청년. 그들의 다리목이 되어준 시스프렌드 친구들. 또 영화제를 다정히 이끌어준 사무국 직원들까지. 모두에게는 세월 속에 조금씩 익어간 저만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덧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다. 영화제는 끝이 났지만 흘러가는 시간 아래 작고 따뜻한 감정들이 모여 이야기는 되쓰일 것이다. 모든 페이지가 완성될 찬란한 순간까지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응원하고 싶다. 우리의 이야기는 줄곧 이어져왔다고 믿고 있다.



3.

CHAPTER

관계를 넘나드는

세대통합 이야기

할까 말까?	34
나의 아버지	36

현장의 목소리

관계를 만드는 사회복지사	38
---------------	----

외부기고

옆 집 손가락 알던 시절	40
---------------	----

피어나는 시간

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시간	42
-------------------	----



할까 말까 할 때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답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먼저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희덕 어르신과 조현서 청년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촬영 및 편집
영상서포터즈
이근주, 박정영



젊음을 소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이야기를 청년과 어르신
두 세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세열, 윤영숙 어르신과 강민지 청년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서포터즈
강민지, 윤지현



‘너는 내가 젊음을 소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세열 어르신

“어렸을때로 돌아가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엄마도 어떤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나보니 비로소 알게 된
어르신의 부모님 이야기,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청년의 부모님 이야기를
영상과 함께 전합니다.

청년 강민지



관계를 만드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현장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을 이어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사회를 구성하는 당사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다음 세대를 돌보는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흔히 '좋은 일'로 뭉뚱그려지지만 꾸준함과 듣는 힘으로 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영상과 함께 전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얼마든지 함께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임현지 사회복지사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촬영 및 편집
이주연 사회복지사



옆 집 손가락 알던 시절

마음대로교육 대표 노수현

사람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일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삶의
동력도 사람에게서,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지역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언제나
관계가 피어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이를 꾸준히 전하는 실천가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미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
니다. 예전에는 잘 쓰지 않던 관계라는 단어를 남발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 쓰는
건 그만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단절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에는 관계 단절로 인한 문제가 시급합니다. 사회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근본
적인 해결이 되겠지만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
다. 해답은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옆집 손가락 개수
도 알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손가락 개
수까지 알았을까요? 그만큼 자주 만났고 서로의 집을 왕래했고 같이 밥을 먹었
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는 자주 만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맺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현대의 관계 단절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답이 명확해집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만나게 하면 됩
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평상이 사라진 자리를 복지관이 대신합니다. 오
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복지관의 친구들이 대신합니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결
국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만난 친구들이 새로운 가족
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비슷
하기 때문입니다. 꼭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 알고 인사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인사만 나눠도 마음에는 생기가 돕니다. 관계는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 처음 입사해서 이직하게 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기초
생활수급을 받는 어느 할머니 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할머니 댁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꼭 업무가 아니어도 찾아뵈었고 퇴근 후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
렇게 5년을 지내고 퇴직하게 되어 사정을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에 할머니께서 보자고 하셔서 뵈었더니 금반지 하나를 전하더라고요. 넘죽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댁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니까요. 그러나 할머니
께서도 물려서지 않았습니.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어오는 그 사회복지사에게
감사하게 받으라고 말해줬습니다. 반지가 아닌 할머니의 마음으로 받으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지를 하다가도 길을 잃으면 할머니의 반지를 보면서 무엇
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기라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관계를 그동안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했는지도 모릅니
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만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깊은 관계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만남이 없으면 관계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만나
야 하고 만나게 해야 합니다. 만남에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가을이 되
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며 삽니다. 톨스토이는 사람
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만남의 열매를 먹고 삽니
다. 오늘 저녁 누구를 만나시려나요?

피어나는 시간

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은 유한합니다.

만약, 영원한 삶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정한 말을 건넬 이유도, 시간을 내 보고싶은 이를 만나러 갈 이유도 없어집니다. 어차피 그런 말은 내일 건네면 되고, 내일이 아니면 모레 나누면 되니까요.

한정적이기에 순간의 추억들이 소중한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그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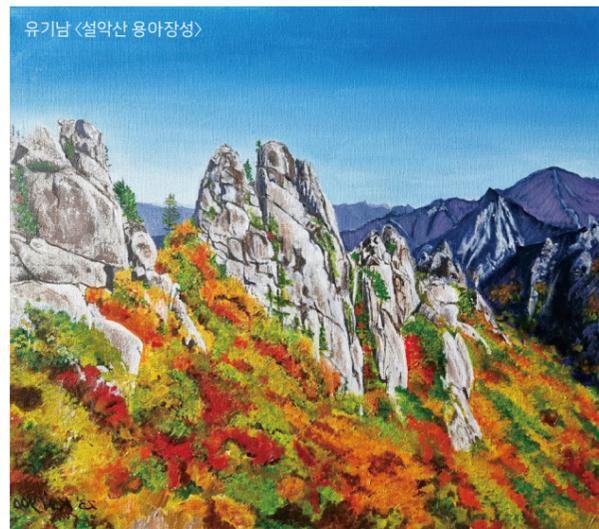
끝이라 생각했던 지점에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고, 피어나는 순간을 캔버스에 기록하는 유기남, 박미라 어르신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박미라 <백두산 전지>



유기남 <만추>



유기남 <설악산 용암장성>



박미라 <숲의 아침>



유기남 어르신



박미라 어르신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www.facebook.com/seoulnoin

 <https://www.instagram.com/seoulnoin>

 <https://youtube.com/@TV-vu4ri>

 http://pf.kakao.com/_ZrQxhT

